

	<h2 style="text-align: center;">보 도 자 료</h2> <h3 style="text-align: center;">1.7[목] 조간부터 보도가능</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창조 금융</li> <li>• 따뜻한 금융</li> <li>• 튼튼한 금융</li> </ul>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		
책 임 자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 남동우 팀장(2156-9604)	담 당 자	최상아 사무관(2156-9670)
	나이스평가정보 신희부 전무(2122-5200)		박상순 팀장(2122-4642)
	코리아크레딧뷰로 김정인 전무(708-6254)		박경범 실장(708-6175)
배 포 일	2016.1.6(수)	배 포 부 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5매

## 제 목 : 신용정보 활용방식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 ◇ 최근 2년간 제출된 민원 분석, 국정감사 의견(정무위 신동우 의원 등) 등을 반영하여 신용정보 활용방식을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 감소
- ① 제2금융권 대출 성실상환자의 신용회복 속도를 현재보다 빠르게 조정하여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변경
  - 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되는 공공정보(학자금대출 연체, 국세 등 체납) 활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일부 단축하여 국민 불편 해소
  - ③ 실수로 단기 연체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람들에 대한 연체정보 활용기간을 단축하고, 연체 통보내용을 구체화하여 정보결정권 강화

### 가. 제2금융권 대출 성실상환자 신용회복속도 조정

(질문) 은행을 이용할 수 없어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1~2년간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했는데도 신용등급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사례) A씨는 저축은행 대출을 받은 후 2년간 연체없이 상환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대출을 받기전과 동일 수준으로 유지된 반면, C씨는 은행 대출을 받은 후 2년간 연체없이 상환하자 신용등급이 크게 상승

- (현재) 제2금융권의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신용등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나, 상승폭이 은행권에 비해 낮습니다.
- (개선) 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고 일정기간(예시 : 2년) 연체없이 성실상환할 경우 신용등급이 현재에 비해 빨리 올라가도록 조정됩니다.
- (기대효과)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더라도 다른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할 경우 신용등급이 보다 빨리 회복되어 대출한도 및 금리우대 등에 있어 기존 보다 유리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나.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활용기간 단축

(질문)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연체금을 모두 상환했는데 왜 저의 신용등급이 높아지지 않나요?

(사례) A씨는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500만원을 연체하여 신용등급이 6등급에서 8등급으로 떨어졌고, 1년 후 연체금을 모두 상환하였으나 6등급으로 다시 회복되는데 5년이 소요

- (현재)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연체금을 모두 상환하더라도 상환일로부터 5년간 연체이력정보가 신용등급 산정에 계속하여 활용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더디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 (개선)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연체를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의 활용기간이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 (기대효과) '15.10.31일 기준 연체이력을 활용 중인 16만여명 중 금번 개선으로 약 13.4만명이 혜택을 보게 되어 사회초년생 취업, 금융상품 이용 등 사회진출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혜택을 보게 되는 13.4만여명 중 5.4만여명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이 예상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활용현황, '15.10월말 기준, 나이스평가정보>

구 분	상환 후 1년 이내	1~3년 이내	3~5년 이내	소 계
인원(명)	25,433	80,821	53,985	160,239

#### 다. 실수로 인한 소액·단기 연체정보 활용기간 단축

(질문) 실수로 대출이자 20만원을 약 10일간 연체 후 즉시 연체이자를 상환했는데 신용등급이 2등급이나 하락했고, 이후 2년간 연체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용등급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사례) A씨는 2주간 해외출장으로 대출이자 자동납부계좌의 잔고를 확인하지 못하여 대출이자 25만원을 15일간 연체하였고 귀국 후 즉시 상환하였으나 신용등급은 4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락하였고 이후 아무런 연체가 없었음에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용등급은 여전히 6등급인 상태

□ (현재) 실수로 연체하였더라도 5영업일 이상 연체한 사실은 연체 해소 이후 3년간 신용조회회사의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므로 신용등급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 (개선) 부주의 또는 일시적 자금경색 등으로 30만원 미만의 소액을 단기간(30일 이내) 연체한 후 상환한 경우에는 연체이력을 1년만 활용하고, 1년이 지나면 활용하지 않도록 개선됩니다.

□ (기대효과) '15.10.31일 기준, 단순 부주의나 일시적 자금경색 등으로 인한 소액 연체이력을 활용 중인 72만명 중 금번 개선으로 약 48.5만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 또한, 향후 신용등급의 빠른 회복으로 대출한도 및 금리 등에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 혜택을 보게 되는 48.5만여명 중 19.2만여명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이 예상

<1회성 단기연체정보> 활용현황, '15.10월말 기준, 나이스평가정보>

구 분	상환 후 1년 이내	1~3년 이내	소 계
인원(명)	234,442	485,486	719,928

\* 30만원 미만 30일 이하 연체정보를 최근 3년내 1건만 보유중인 경우

#### 라. 국세 등 체납정보 활용기간 단축

(질문) 수년전 사업실패로 발생한 국세체납금 600만원을 최근에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동 국세체납으로 인해 하락한 신용등급은 전혀 회복되지 않아 여전히 은행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례) 개인사업가 A씨는 4년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국세 600만원을 체납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신용등급이 4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락하여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다가 3년전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고 신용등급 회복을 기대하였으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신용등급은 6등급으로 전혀 회복되지 않음

□ (현재)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 등 공공정보는 체납금을 납부하더라도 체납 이력이 5년간 신용조회회사의 신용등급산정에 반영되므로 체납으로 인해 하락한 신용등급의 회복이 더딘 것입니다.

□ (개선)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 등 공공정보의 경우 체납금을 완제하는 경우 신용조회회사의 체납이력 활용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 (기대효과) '15.10.31 기준, 국세 등 체납이력을 활용 중인 72만여명 중 26.1만명이 금번 개선으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 또한, 신용등급의 빠른 회복으로 향후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금리 및 대출한도 등에 있어 유리해집니다.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 체납정보 활용현황, '15.10월말 기준, 나이스평가정보>

구 분	상환 후 1년 이내	1~3년 이내	3~5년 이내	소 계
인원(명)	180,061	279,334	261,211	720,606

## 마. 연체사실 등 통보관행 개선

(질문) 대출이자를 자동이체로 납부해 오던 중 잔고가 부족하여 10일 연체하자 신용등급이 2단계 하락하였습니다. 금융회사가 연체 정보 등록시점과 불이익 등을 상세히 알려줄 수 없나요?

(사례) 신용등급 5등급의 A씨는 은행대출금 500만원을 2주간 연체 후 상환하였으나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떨어져 은행의 추가대출이 어렵게 되어 대출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음. 연체정보 등록시점과 불이익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기한내 상환 하여 지금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하소연

☐ (현재) 금융회사는 연체발생시 연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있으나 연체정보의 신용조회회사 등록시점이나 등록시 불이익 등에 대하여 상세히 통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개선) 본인의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연체사실 통지시 연체 정보의 신용평가 활용시점, 신용평가에 활용될 경우 불이익(신용등급 하락, 이자율 상승 등)에 대해 상세히 알리도록 개선됩니다.

(예시) 00월 00일 현재 대출원리금 연체가 발생하였습니다. 00월 00일까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 연체정보가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어 신용등급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대효과) 신용등급 불이익 없이 연체를 해소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함으로써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신용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신용을 관리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개선과제	시행시기(목표)
▪ 제2금융권 대출 성실상환자 신용회복속도 조정	'16.7.1일
▪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활용기간 단축	'16.7.1일
▪ 실수로 인한 소액·단기 연체정보 활용기간 단축	'16.7.1일
▪ 국세 등 체납정보 활용기간 단축	'16.7.1일
▪ 연체사실 등 통보관행 개선	'16.4.1일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